

‘질보다 양’에 치우친 논술서 쏟아져

대부분 트렌드 좇는 획일화된 태도 “모처럼의 독서 풍토, 양서로 뒷받침해야”

2005년도에 두드러진 문화 현상 중 하나는 논술과 독서 교육이 강화된 점이다. 갈수록 대학 입시의 논술 비중은 높아지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교육 현상은 논술에 대한 기초교육이 전무한 상황으로 학생들의 요구와 외부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연히 학원과 과외 등의 사교육으로 논술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 또 시험을 코앞에 둔 학생들은 단기간에 논술 시험 요령을 익히는 게 급선무라 출판시장에서도 이런 수요를 반영해 시험 대비 논술서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단순한 암기나 단답형 공부로는 논술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학부모들 사이에서 독해력과 사고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철학·인문·교양물 성격의 논술서들이 출간되는 등 2005년 논술시장은 장르가 다양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청소년 시장에서는 고전과 교양서 출간이 붐을 이루었다. 특히 청소년이 읽기 쉽게 다시 풀어쓴 고전들이 지속적으로 발간되었다. 서해문집의 《신곡》《유토피아》, 사계절의 《논어 - 사람의 길을 열다》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청소년 교양도서 중에선 ‘역사’가 뚜렷한 강세를 띠었다. 휴머니스트의 《살아 있는 한국사 교과서》《살아 있는 세계사 교과서》 시리즈는 교과서를 비판적으로 보완하는 기초교양물로서 호평을 받았다. 철학을 소설 형식으로 재구성한 디딤돌의 ‘철학소설’《플라톤, 영화관에 가다》는 청소년 철학서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고, 《명작 속에 숨어 있는 논술》(살림), 《고전과 논리적 글쓰기》(이제이북스)처럼 좀더 실제적인 워크북으로서의 논술서들도 주목을 받았다.

비슷한 테마의 특징없는 책 쏟아져... ‘자양분될 양서 절실’ 목소리

중전의 중고생 위주의 논술서 시장이 초등학생까지 그 대상이 확대된 것은 2005년 논술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다. 하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라 양질의 책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다. 주니어 김영사의 배수원 편집부장은 “2005년에 발간된 어린이 논술서 중수는 많았지만 눈에 띄게 주목받은 책은 없었다”며 “시장 조사를 해보면 수요는 많은데 막상 많이 판매된 책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다들 급하게 트렌드를 쫓아가다보니 다양하고 충실한 기획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비슷한 수준의 비슷한 테마를 가진 책들이 너무 많이 나왔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논술 책을 찾아보기 힘들다. 배 부장은 그래서 “학부모와 아



이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만한 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반성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동화작가가 쓴 《논술세계로 떠나는 신나는 토론 여행》(아이세움) 정도가 그나마 신선한 기획으로 눈길을 끈 정도였다고 한다.

독서이력철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07학년도 이전에 교육부 차원에서 권장도서 목록 작업을 시행할 예정인 만큼, 논술서 시장에서 고전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원전을 쉽고 재미있게 편집하여 풀어 쓰는 추세도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편집한 책으로 얻는 파편적이고 단편적인 지식 습득 위주의 독서는, 암기 위주의 학습에 길들여진 청소년에게 사고력과 글쓰기 능력, 교양을 길러주려는 논술의 원래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한다. 쉽게 정보를 요약하고 논술의 모범 답안을 암기하는 데 익숙해진다면 현재의 논술은 그야말로 시험을 위한 논술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라 우려다. 한 독서운동단체 관계자는 “그 배경이 무엇이든 간에 모처럼 불기 시작한 독서 교육과 고전 읽기의 바람이 그냥 스치고 가는 바람이 되지 않고, 입시에 찌들어 책 한 권 제대로 읽을 시간이 없는 청소년들의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양서를 출간하는 일이 앞으로 출판계의 몫으로 남아 있다”고 주문했다. ■

취재 김지희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